

기고

김영우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



128년이 지난 지금은?

1870년 강화도조약체결로 일본 식민주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각종 불평등한 통상조약 속에 항구, 광산, 철도, 공장 등이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임금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는 일본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항일운동을 병행한 파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행사는 일제 식민시절 조선노동연맹회의 주도로 1923년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노동운동의 요구사항은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인상, 실업해결이 쟁점이었다. 세계최초 노동절창립대회는 1889년 프랑스혁명의 100주년기념일에 세계20개국 노동자대표자가 프랑스파리에서 1886년 미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상기·확산시키고 5월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시초가 되어 올해로 12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노동의 보호, 결

사의 자유, 전쟁과 평화, 8시간노동시간장취가 목표였다.

오늘날 세계노동절인 5.1절 탄생의 배경은 1880년 미국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목표로 5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들이 정부에게 강제진압을 촉구하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고, 다음날 격분한 미국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민행을 규탄하기위해 하이마켓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5명은 사형, 3명이 금고형을 받았던 사건으로 7년 후 재판에서 이 사건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자본가들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노동절행사를 기념한지 47년이 지난 1970년 군사정부시절 서울도심 청계천에서 22살 청년 노동자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외치는 분신한다. 분신에 앞서 청년진태일은 대통령 박정희에게 잠시

간 노동으로 15살 여공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위염, 호흡기장애와 폐결핵 등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의 주 45시간의 곱을 더한(주8시간)1일 14시간노동을 10시간 내지 12시간으로 줄여주고 격주휴무를 매주 휴무로 개선해줄 것을 박정희에게 요구하였으나 진달조차 되지 못하여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계획하고 분신하면서 당시 지식층과 노동자들의 의식개화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진태일분신후 또다시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간 노동이 실종되고 철저하게 통제받고 유린당하면서 처절한 희생과 경험을 했다.

다행히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정부는 노동존중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는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되었고, 박근혜정부가 갈망했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해고의 유연성 등과 같은 행정지침 또한 폐기되었다.

단계적이긴 하지만 근로시간단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도입에 있어 반발 또한 심각하다.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창출보다는 공장 문을 닫게 할 것이라는 겁박이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두고도 노사모두가 전진공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까지 연장노동 20%내외를 관행처럼 하지 않으면 기본생활마저 할 수 없는 임금체계가 문제다.

고도 압축 성장과정에서 기성세대에게 희생만 강요했던 잘못된 임금체계는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가 있었다. 자본은 128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를 경제체제의 양 수레바퀴중 하나라고 떠들었지만 소득분배의 약순환은 계속되었고 불평등은 오늘도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1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투쟁구호는 변함없이 하루 8시간 노동쟁취다.

128년 동안 줄기차게 8시간 일하면 먹고 살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의 아직도 공허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社說

구급대원 폭행 엄단해야

구급대원을 폭행한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 발생했다. 가해자 중 183명은 벌금형, 147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134명은 현재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에서 지난해엔 167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지적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 92%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졌다.

우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행당한 구급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증거 확보를 위한 폐쇄회로(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구급차 내 비상버튼·애플리케이션 등 폭력 방지장치 개발 등의 대응책을 내놴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경찰청과 협의해 현장 협력을 위한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2 columns: Character (淵, 澄, 取, 暎) and Meaning (뜻, 읽을, 가질, 비칠) and a larger section with 淵, 澄, 取, 暎 and 淵, 澄, 取, 暎 and a definition: 淵 뜻: 뜻이 맑아서 비치니, 군자(君子)의 마음을 말한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자율과 책임’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 모두가 노력해야

최근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예전과 다르게 경찰의 부담감은 많이 감소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역대 최장기 탄핵집회 때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가 크게 바뀌었으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발표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다. 경찰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서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경력배치로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경찰과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시켜 평화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진적인 평화집회 문화로 거듭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

해서는 시민의 도움도 절실하다. 시민들도 더이상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로잠거,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형태의 시위문화는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회를 개최하면 신고 된 장소와 준수사항을 지키고 질서유지인 스스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

질서 없는 의사표현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누구의 동조도 없지 못한다는 걸 시민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참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소한 마찰로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과 참가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집회시위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광홍 /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with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 It features images of a young woman and an elderly woman, and text promoting empathy and social harmony.